『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정광균(법상) *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1.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선문촬요』
2.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주요용어들
3.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
Ⅲ. 나아가는 말

요 약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선문촬요』의 내용과 더불어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주요어구들과 주요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백용성 대종사의 『선문촬요』는 『법해보벌』과 『용성 대종사 전집』, 운문사와 범어사에서 판각하여 출판한 『선문촬요』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분량이다. 그러나 그 중 참선수행에 요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요긴한 것들을 담고 있다.

다음은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주요어구들은 당시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즉,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해보면, 첫째 당시의 한글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번역한 것이다. 백용성 대종사의 번역은 기존의 한문 투의 한글 음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사가 아니라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백용성 대종사가 의도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모르는 일반대중은 한자의 음사로는 불교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의미의 번역을 철저하게 고수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주권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다.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번역이며, 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글 의미의 번역을 시도한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Ⅰ. 들어가는 말

한문 불전에 대한 번역의 역사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다. 말하자면 한글이 창제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선 역사에 면면이 이어졌다. 하지만 근현대적 한글 의미의 번역은 아마도 백용성 대종사(이하 용성으로 약칭함)에 의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용성의 번역물을 다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의 지원으로 진행하는『백용성 대종사 총서』발간 및 전산화를 위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여겨진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본 발표자의 영역은『선문촬요』다.『선문촬요』는 주지하는 것처럼 고대 또는 근대에 걸쳐서 중국과 한국선종의 주요한 전적을 포괄하는 매우 주요한 저작이다. 하지만 본서는 한글 의미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인이 보기에 매우 부담이 가는 저서였다. 하지만 용성의 번역을 필두로 부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철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용성의 번역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근대의 번역으로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분분이 감지된다.

이에 발표자는 이런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번역의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제시함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용성이 번역한 『선문촬요』의 내용 중에 완전한 번역 아니고 부분 번역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변역한 어구에 대한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문 현토로 구성된 내용이나 또는 『용성 대종사 전집』에 들어 있는 내용을 모두 번역한 것이 아니고, 간화선 수행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간취하여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에 번역한 어구에 대한 내용을 용성 특유의 용어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구나 사상을 모두 논할 수는 없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어구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용성이 번역한 중요한 용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의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선문촬요』 번역의 제 문제

1. 백용성 대종사 번역의 『선문촬요』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선문촬요』를 보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즉, 용성의 전집이나 불모산 성주사, 그리고 근래에 범어사에서 발행한 목판본의 내용을 보면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용성의 한글 의미의 번역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세히는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부수심정로(付修心正路)』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용성 대종사 전집과 성주사 간행 및 한글 의미의 번역과 대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법해보벌	성주사 간행본	용성 대종사 전집	한글 번역본
관심론	제1장 과거칠불	상권 혈맥론	제1권 달마관심론
혈맥론	제2장 33조사	상권 관심론	제2권 보조수심결
신심명	제3장 혈맥론	상권 사행론	제3권 달마혈맥론
최상승론	제4장 관심론	상권 최상승론	제4권 보조진심직설
전심법요	제5장 사행론	상권 완릉록	제5권 참구문
완릉록	제6장 반야심경	상권 전심법요	부 수심정로
진심직설	제7장 오성론	상권 몽산법어	
수심결	제8장 최상승론	상권 선경어	
선경어	제9장 완릉록	하권 수심설[1]	
	제10장 전심법요	하권 진심직설	
	제11장 법어	하권 정혜결사문	
	제12장 선경어	하권 간화결의	
	제13장 수심론	하권 선문보장록	
	제14장 진심직설	하권 선문강요집	
	제15장 정혜결사문	하권 선교석	
	제16장 원돈성불론		
	제17장 간화결의론		
	제18장 보장록		
	제19장 선문강요집		
	제20장 선교석		
	제21장 오종가풍		
	부 신심명		
	부 영가대사증도가		
	부 좌선의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法海寶筏』에서 『용성 대종사 전집』으로 『용성 대종사 전집』에서 성주사 간행본 또는 범어사 목판본으로 증보된 부분에서 일부가 탈락되었고, 용성이 번역하면서 많은 부분을 또다시 탈락시켰다. 용성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부분만을 번역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선문촬요』 원본의 구성이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참고한 현존하는 『선문촬요』의 결집의 연

1) 수심론이다.

대는 『용성대상 전집』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문촬요』의 간행은 먼저 호거산 운문사에서 간행하고 나서 금정산 범어사로 옮겨서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결집한 저자에 대해서도 鏡虛惺牛(1849~1912)가 엮었다고 하기도 하고 범어사의 주지였던 성월일전(1864~1942)이 엮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성주사 간행본에는 雪峰鶴夢(1890~1969)이 현토하여 간행한 서문(응화 2986년)은 서기 1959년이다. 이러한 촬요의 선후의 관계의 연대는 『法海寶筏』이 가장 앞선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세밀한 검토는 본 주제에서 벗어나고 그럴 여유도 없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한다.

하여튼 용성은 원본에는 없는 과목을 붙여서 공부하는 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에는 본래 과목이 없었던 것을 용성이 과목을 붙여서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심(觀心), 심구염정연기(心具染淨緣起), 진심인망불현(眞心因妄不現), 선법이각위근자(善法以覺爲根者), 악법이삼독위근(惡法以三毒爲根), 정명육적(正明六賊), 단삼독근(斷三毒根), 요출삼계(了出三界), 삼계원인(三界原因), 미현육취(迷現六趣), 섭심해탈(攝心解脫), 즉삼독현아승지(卽三毒現阿僧祇), 명삼취육바라밀(明三聚六波羅密), 심정즉각토정(心淨卽覺土淨), 중명육도(重明六度), 명법유(明法乳), 수조성전(修造聖殿), 주사각상(鑄寫覺像), 오분향(五分香), 산화(散花), 명등(明燈), 행도(行道), 재계(齋戒), 재식(齋(齊)食), 단식(斷食), 예배(禮拜), 세욕(洗浴), 명염각(明念覺), 회상귀심(會相歸心), 망영각상탑묘(妄營覺像塔廟), 결귀관심(結歸觀心) 등 31절로 달마의 저작으로 간주한 관심의 입장에서 논한 것이다.[2)]

---

2) 柳田聖山, 『語錄の歷史』-禪文獻の成立史的硏究(pp.59-65)에 의하면 『관심론』은 『선문촬요』에 『파상론』이란 명칭으로 『소실육문』과 더불어 달마대사삼론으로 간주되어 전승되어 왔으나 당 혜림의 『一切經音義』에 신수의 작품이라고 밝혀져 현대 학계에서는 홍인의 『수심요론』에 의거해서 북종선의 입문서로 밝혀졌다.

다음에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도 원본에는 과목이 없는 것을 용성이 과목을 덧붙인 것이다. 그 과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고시진(擧苦示眞), 미심수도종무이익(迷心修道終無利益), 성범일도지명일심(聖凡一道只明一心), 중생일용부지이일물(衆生日用不知這一物), 거고명증(擧古明證), 의각이수비일시돈현신통(依悟而修非一時頓現神通), 선변돈오점수(先辨頓悟漸修), 구오방편전전차과(求悟方便轉轉蹉過), 직시공적영지(直示空寂靈知), 직지인심 본래시각(直指人心 本來是覺), 지시관음입이문(指示觀音入理門), 결권(結勸), 중시오후점수(重示悟後漸修), 정시이문정혜(正示二門定慧), 상명이문정혜(詳明二門定慧), 권결(勸結) 등 **15절**로 과목을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셋째로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 역시 원본에는 없는 과목을 용성이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그 과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심외무각성(心外無覺性), 미심만행미면윤회(迷心萬行未免輪廻), 명불경소이(明不敬所以), 도부재산야(道不在山野), 도한역득성도(屠漢亦得成道) 등 **5절**로 나누어 과목을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이상의 과목을 덧붙인 것과 더불어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은 여러 곳에서 번잡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구성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타 내용들도 내용에 부합한 내용으로 변경한 부분도 나타난다. 그리고 차례를 용성이 재구성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관심(觀心)에서 수심(修心)으로 수심에서 혈맥(血脈)으로 내용을 바꾸고 마음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보한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을 번역의 차례로 설정한 것이다. 이어서 간화선의 실천에 관한 「선경어(禪警語)」로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등을 간추려 번역하고 본인이 저작한 『부수심정로(付修心正路)』를 덧붙여 간화선 수행의 요체를 완결하고 있다.

2. 백용성 대종사가 번역한 주요용어들

이상에서 용성이 번역한 『선문촬요』의 용어들을 보면, 현대 불교학계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들 중에 불(佛)자에 대한 용어를 각(覺)자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菩薩)에 대해서는 정사(正士)로, 보리(菩提)는 정각(正覺) 또는 각도(覺道)로, 불성(佛性)은 각성(覺性)으로, 열반(涅槃)에 대해서는 원적(圓寂)으로, 여래(如來)란 용어는 대각(大覺)으로, 자성(自性)은 '성니'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일상적인 용어들에서도 수정되어야할 내용으로 왈자(曰字)를 '가라사대'로, 자자(自字)인 '스스로'를 '스사로'로, 유자(唯字)인 '오직'을 '오즉'으로, 단자(但字)인 '다만'을 '다못'으로, 이름을 '일홈'으로, 졸음을 자불음으로, '이르시되'를 '일우사대'로, '드디어'를 '드듸여'로, '~가'나 '~인가'를 '~고'나 ~닛고'로, '그러므로'나 '그런 까닭'에 대해서는 '고로', '하여'를 '하야'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주요한 용어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변형	번역	현대어
佛	覺	각	부처
菩薩	正士	정사	보살
菩提	正覺, 覺道	정각, 각도, 각도	보리, 깨달음
佛性	覺性	각성	불성
涅槃	圓寂,	원적	열반
成佛	成覺	성각	성불
佛土	覺土	각토	불토
性	性	성니	자성
如來	大覺	대각	여래
曰		가라사대	이르되
自		스사로	스스로
唯		오즉	오직
但		다못	다만

名		일홈	이름

그런데 불자(佛字)와 여래(如來)와 불성(佛性)과 성자(性字)와 보리(菩提)에 대해서는 각각 각자(覺字)와 대각(大覺), 각성(覺性), 성니, 정각(正覺) 또는 각도(覺道)로 철저하게 번역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불(佛)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자(佛字)는 붓다(buddha)의 음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있어서는 '깨달음'이다. 때문에 한글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나머지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이러한 한글 의미의 해석을 철저하게 지켜서 당시 이해되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번역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용성의 번역은 기존의 한문 투의 한글 음사가 아니라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성 이후로도 한문을 한글로 음사한 것에 불과한 것을 한글 의미로 해석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고 용성의 탁견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용성이 의도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모르는 일반대중은 한자의 음사로는 불교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의미의 번역을 철저하게 고수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도 역시 용성의 탁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도 불교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교를 이해시키고 포교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를 포교할 대상은 바로 일반대중이었다. 한문 투의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아로새겨주는 것이 바로 포교인 셈이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주권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의 침탈로 인해서 자주독립국가임을 상실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민족의 자주독립국가임을 염원한 한글 의미의 번역이야말로 민족을 독립시키고 민족자존을 지키려는 용성의 번역이라 여겨진다. 일본은 그들의 글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조선은 조선의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한문을 음사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 것에 철저한 지성적 반성인 것이다.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번역이며, 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글 의미의 번역을 시도한 것이라 여겨진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한글화해서 이해하기 쉽고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한글 의미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주목하여 한글 의미의 번역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포교는 깨달음의 일반화이고 깨달음의 사회화이며 깨달음의 국가화이다. 깨달은 민족은 독립이 가능하고 깨달은 국민은 행복하다. 이러한 포교는 깨달음의 철저한 사회적 실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깨달음, 사회적 깨달음, 국가민족의 깨달음으로 국민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으로 이끄는 첩경이고 독립국가다. 따라서 국민의 깨달음을 위한 한글 의미의 해석된 번역이야말로 진정한 번역이며 포교인 셈이다.

이상과 같은 용성의 한글 의미로 해석한 번역이야말로 주목할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것을 고수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용성의 시절과 현재의 개인, 사회, 국가의 일반대중의 지적 수준과 의식수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의 교의에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기적 무상성과 무아성인 무자성성이야말로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현실 속에 실현해야할 중대한 의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절인연에 부합하는 것은 불교교리의 교의에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불자(佛字)'라는 말에 대해서 현재 일반대중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깨달음이다. '정사(正士)'라는 용어도 역시 '보살'이라는 용어로 모두 일반대중이 이해는 의미다. 현재는 '정사'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린다. 더구나 삼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지금처럼 불교교학이 발전한 유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 상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지칭하는 부분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부분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산견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를 용성의 독특한 번역으로 고수하기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 본래의 원문을 용성의 번역 문자로 바꾸는 것은 원문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와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란 용어는 현대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보편화되었고 일반적인 용어로 상용되고 있으며 일반대중들도 모두 이해하는 개념이다. 또한 '가라사대'나 '고로'나 '연고'라는 고어는 '말하되'나 '그러므로'나 '때문에'라고 말해지고 있다. 더구나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해서 한글세대를 위해서는 현대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간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

먼저 『달마관심론(達摩觀心論)』[3]을 보면, 먼저 유심(唯心)의 해석을 보면 '오즉 마음이'[4]라고 해석하였다. 사소하긴 하지만 '오직 마음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음에 고지(故知)에 대해서 '그런 고로 알나'[5]로 번역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알라'라고 번역한다. 답왈(答曰)을 '대답하야 가라사되'[6]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대답하여 말하되, 또는 대답하길'로 번역하는 것이 상례다. 셋째는 의문형의 번역어로 '~고'[7]라고 번역하는데 현재는 '~가'라고 한다. 넷째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자(自)를 '스

3) 『少室六門』「第二門破相論」(大正藏 48, No. 2009, pp.366c-369c); 『達磨大師破相論』(卍新纂續藏經 63, No. 1220, pp.8c-11c); 編輯 鏡虛惺牛, 懸吐 雪峰鶴夢, 新刊懸吐 『禪門撮要』(佛母山聖住寺, 1993.10, pp.125-137); 용성 대종사 전집에는 『禪門撮要上下』로 되어 있다.

4)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1)

5)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6)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1); 『禪門撮要上下』(p.4-162)

7)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사로'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스스로'라고 번역한다. 다섯째는 열반락(涅槃樂)을 '원적낙'[8]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열반락'이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그리고 본래(本來)를 '본대'[9]로 번역하였으나 '본래'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여섯째로 『십지경』의 금강불성(金剛佛性)에서 불성(佛性)을 '각성(覺性)'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원문을 바꾼 것이다. 물론 원문의 해석에서 의미상 각성(覺性)이 타당하겠지만 불성(佛性)으로 일반화된 현대 용어다. 또 『涅槃經』을 『圓寂經』으로 바꾸고서 『涅槃經』[10]으로 번역하였다. 나아가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또는 보살행(菩薩行)을 '대정사와 정사행'[11]으로, '여래(如來)'를 '대각(大覺)'으로, '성불(成佛)'을 '각도를 일움'[12]으로, '불토(佛土)'를 각토(覺土)'[13]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비록 한글 의미의 번역이긴 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제안해 본다. 물론 당시 일반대중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용성이 번역한 특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용성의 의도는 바로 일반대중에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번역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에 용성의 의도를 무시하고 번역을 고수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용성이 번역한 특징을 살려도 원문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되 원문의 의미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

8)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2)
9)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3)
10)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64)
11)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2)
12)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2)
13)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p.4-174)

다음에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불(佛)'이란 문자와 '보살(菩薩)'이란 용어를 철저하게 바꾸어 번역한다. 먼저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을 보면 "삼게 불집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고자 할진대 깨친 것을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깨친 것을 구하고자 할진대 깨친 것이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니 찾으랴. 몸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14]라는 내용이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전환하면 "삼계의 불집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 찾으랴. 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불(佛)의 의미는 분명히 '깨달음'을 뜻하지만 내용상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부처와 깨달음은 분명 다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처는 깨달음을 완성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깨달음의 내용도 내포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인격적 완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깨달음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음에 원문은 '일대장교(一大藏敎)'이라고 하였는데 번역에서는 '성경'이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성경'이란 용어는 이미 기독교의 '바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성경이란 용어는 재고할 내용이라 여겨진다. 다음에

> 故로 大覺(世尊)이 云普觀一切衆生호니 具有大覺(如來)智慧德相이라하시고 又云一切衆生의 種種幻化가 皆生大覺(如來)의 圓覺妙心이라하시니 是知커라 離此心外에 無覺(佛)可成이로다 過去諸大覺(如來)도 只是明心底人이며 現在諸賢聖도 亦是修心底人이며 未來修學人도 當依如是法이니 願諸修道之人은 切莫外求어다 心性이 無染하야 本自圓成하니 但離妄緣하면 卽如如覺(佛)이니라
> 그런고로 각(세존)이 말삼하사대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낱낱이 각의 지혜와 만덕상이 갖추어 있다 하시고,……알괘라. 이 마음을 떠나고는

14) 용성 대종사 전집,『禪門撮要 下』(p.4-199)

> 각(부처)을 가히 이루지 못할 지로다. 과거에 모든 각(여래)도 다못 마음 밝힌 사람이며 현재에 모든 성현도 또한 마음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수학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모든도 닦을 사람은 간절히 마음 밖에 구하지 말지어다. 심성이 더러움이 없어 본대 스사로 뚜렸이 일우웠으니, 다못 망녕된 것만 여이면 곧 여여한 각(부처)이니라.15)

라는 내용에서 보면, 세존(世尊)과 여래(如來), 불(佛)을 모두 각(覺)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운자(云字)를 말삼하사대로. 고(故)를 그런고로, 시지(是知)를 알괘라, 단자(但字)를 '다못'으로, 자자(自字)를 '스사로', 성(成)을 '일우다'로 번역하였다. 위의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낱낱이 부처님의 지혜와 만덕상이 갖추어 있다 하시고……알겠노라. 이 마음을 떠나고는 부처를 가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도 다만 마음 밝힌 사람이며, 현재에 모든 성현도 또한 마음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수학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모든도 닦을 사람은 간절히 마음 밖에 구하지 말라. 심성이 더러움이 없어 본래 스스로 뚜렷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자(性字)에 대한 번역을 철저하게 "성니"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자성'이란 의미로 일반화된 용어다. 단자(但字)도 역시 '다못'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다만 또는 단지'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

15)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下』(p.4-199)에 대한 원문을 보면 "故 世尊 云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又云一切衆生 種種幻化 皆生如來 圓覺妙心 是知 離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只是明心底人 現在諸賢聖 亦是修心底人 未來修學人 當依如是法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이다.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下』(p.4-638)

또한 『달마혈맥론(達摩血脉論)』의 일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前覺(佛)後覺(佛)이 以心傳心하사 不立文字시니라 問曰若不立文字신대는 以何로 爲心이닛고 答曰汝-問吾-가 卽是汝心이오 吾-答汝가 卽是吾心이니 吾若無心이면 因何解答汝하며 汝若無心이며 因何解問吾리오 問吾가 卽是汝心이니라 從無始曠大劫以來로 乃至施爲運動이 一切時中과 一切處所가 皆是汝의 本心이며 皆是汝의 本覺(佛)이니 卽心是覺(佛)도 亦復如是하니라 除此心外에는 終無別覺(佛)可得이니 離此心外에 覓覺道(菩提)圓寂(涅槃)이 無有是處이니라 自性은 眞實하야 非因非果-며 又法卽是心義니 自心이 是覺(菩提)이며 自心이 是圓明寂照(涅槃)이니라 若言心外에 有覺(佛)及道(菩提)可得인댄 無有是處-니 覺(佛)及道(菩提)가 皆在何處오 譬如有人이 以手로 捉虛空得否아 虛空은 但-有名이요 亦無相貌니 取不得捨不得하며 是捉空不得인달하야 除此心外覓覺(佛)은 終不得也-니라

전각후각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나니라. 문왈 문자를 세우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써 마음을 삼나이까? 답왈 네가 내게 묻난 것이 곧 네의 마음이요, 내가 네에 대답하는 것이 곧 내의 마음이니, 무시광겁으로 좇아옴으로써 내지 시위운동이 일체때 가운데와 일체처소가 다 이것이 내의 본심이며 다-이것이 내의 본각이니, 즉심시각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마음을 제하야 놓고는 마침내 별각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도와 원적(영각)을 찾는 것이 옳은 곳이 없나니라. 자성은 진실하야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의 뜻이니, 자심이 이 **보리**며 자심이 이 **열반**이니라. 만일 마음 밖에 각과 및 도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옳지 못하니라. 「마음 밖에 각이 있다고 할진대」 각과 및 도가 다 어느 곧에 있나뇨.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써 허공을 붙잡을려면 되겠느냐 말겠느냐. 허공은 다만 일홈만 있고 또한 상모 없으니, 취할내도 어찌 못하고 버릴내도 어찌 못하며 이 허공을 붙잡을내도 어찌 못하는 것과 같아야 이 마음을 제한 밖에 각을 찾이랴면 마침내 가히 옳지 못하나니라.[16]

---

16)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下』(p.4-248)의 원문은 "前佛後佛 以心傳心 不立文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불(佛)은 그대로 각(覺)으로 번역하였지만, 보리(菩提)를 (道)로 열반(涅槃)을 원적(圓寂, 영각)이나 적조(寂照)라고 원문을 바꾸고서 번역에서는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전불후불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묻되 문자를 세우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써 마음을 삼나이까? 답하되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 무시광겁으로 좇아옴으로써 내지 시위운동이 일체 때 가운데와 일체처소가 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며 다 이것이 나의 본래의 부처이니, 즉심의 이 부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마음을 제하여 놓고는 마침내 별도로 부처를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여읜 밖에 보리와 열반을 찾는 것이 옳은 곳이 없느니라. 자성은 진실하야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의 뜻이니, 자심이 이 보리이며 자심이 이 열반이니라. 만일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옳지 못하니라.「마음 밖에 각이 있다고 할진대」 부처와 보리가 다 어느 곳에 있느냐.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써 허공을 붙잡으려면 되겠는가? 말겠는가? 허공은 다만 이름만 있고 또한 모습이 없으니, 취하려 해도 어찌 못하고 버리려고 해도 어찌 못하며 이 허공을 붙잡으려 해도 어찌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 마음을 제한 밖에 부처를 찾으려면 마침내 가히 옳지 못하느니라.

字 問曰若不立文字 以何爲心 答曰汝問吾 卽是汝心 吾答汝 卽是吾心 吾若無心 因何解答汝 汝若無心 因何解問吾 問吾 卽是汝心 從無始曠大劫以來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皆是汝本佛 卽心是佛 亦復如是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無有是處 自性眞實 非因非果 又法卽是心義 自心是菩提 自心是涅槃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無有是處 佛及菩提 皆在何處 譬如有人 以手捉虛空得否 虛空 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捨不得 是捉空不得 除此心外覓佛 終不得也”

이상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여기서 보리를 용성은 도라고 번역하였지만 그대로 두거나 번역한다면 '깨달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부처와 구별되어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열반을 원적(영각)으로 번역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는 입적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와 내, 너와 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의미의 번역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장소를 지칭하는 '곳'을 '곧'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현재 문법에 어긋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처라는 내용과 깨달음이라는 내용에는 문장에 따라서 완성의 의미와 깨달음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처님을 지칭할 경우 그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에서 일부를 간취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 人天으로 爲樂果하며 有樂空寂者면 信生滅因緣으로 爲正因하고 苦集滅道로 爲聖果하며 有樂覺(佛)果者면 信三劫六度로 爲大因하고 成正覺(菩提涅槃)으로 爲正果어니와 祖門正信은 非同前也-니라 不信一切有爲因果하고 只要信自己本來是覺(佛)이니 天眞自性이 人人具足하고 圓覺(涅槃)妙體가 箇箇圓成하야 不假他求라 從來自備이니라
> 인간 천상에 나는 걸로 질거운 결과를 삼으며, 공적을 질기는 생멸인연을 믿음으로 정인을 삼아 고집멸도로 성과를 삼으며, 각과를 질기는 자는 삼무수겁에 육도만행을 닦음으로 큰 인을 삼고 성정각으로 정과를 삼거니와 조사문중에 정신은 교문에 신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유위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다못 자기 심성이 본래 대각임을 믿을지니 천진자성이 사람사람이 구족하고 자성묘체가 개개이 원성하야 타인에게 구함을 가자치 아니한지라. 종래로 스스로 갖추웟나니라.[17]

---

17) 용성 대종사 전집,『禪門撮要 下』(p.4-665-666)의 원문은 "人天爲樂果 有樂空寂者 信生滅因緣 爲正因 苦集滅道爲聖果 有樂佛果者 信三劫六度 爲大因 成菩提涅槃爲正果 祖門正信 非同前也 不信一切有爲因果 只要信自己本來是佛 天眞自性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不假他求 從來自備"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리열반'을 '정각'으로 번역하거나 '열반'을 '원각'으로 번역하였으며, 불(佛)은 여전히 각(覺)으로 치환하여 '각'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단자(但字) 역시 '다못'으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현대적인 한글 의미의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으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하여 복락을 사랑하는 자는 십선을 믿음으로 묘한 인을 삼아 인간 천상에 나는 걸로 즐거운 결과를 삼으며, 공적을 즐기는 생멸인연을 믿음으로 정인을 삼아 고집멸도로 성과를 삼으며, **불과**를 즐기는 자는 삼무수겁에 육도만행을 닦음으로 큰 인을 삼고 **보리와 열반**을 이룸으로 정과를 삼거니와 조사문중에 정신은 교문에 믿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유위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심성이 본래 이 부처임을 믿을지니 천진자성이 사람사람이 구족하고 자성묘체가 낱낱이 원성하야 타인에게 구함을 가자하지 아니한지라. 종래로 스스로 갖추었느니라.

이상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질기는'은 '즐기는'으로, '각과'는 '불과'로, '성정각'을 '보리와 열반을 이룸'으로, '신하는'을 '믿는'으로, '대각'을 '부처'로, '다못'을 '단지 또는 다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이 밖에도 불성을 각성, 보살을 정사로, 여래를 각이나 대각으로, 보리를 정각으로, 제불을 제각으로, 불법을 각법으로 번역하였다. '빼앗다'는 것을 '앗다'로 축약하여 번역하였고, 구(俱)의 '함께'를 '한가지'로 번역하였다.

다음은 「참구문(參究門)」의 내용 중에 일부의 용어를 보도록 한다. 「참구문」의 구성은 매우 방대한 구절 가운데 용성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부분을 간추린 「선경어(禪警語)」로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正凝禪師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보제존자법어(普濟尊者法語)」 등[18]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감지된다. 예

를 들면 「박산선경어(博山禪警語)」에서는 두려움이란 파자(怕字)를 '접퍼'로 번역하거나 '무슨'을 '무삼'으로, '고양이'를 '괴'로, '다만'을 '다못'으로, '있어'를 '잇어'로, '말씀'을 '말심' 또는 '말삼'으로, '스스로'를 '스사로'로, '반드시'를 '반다시'로, '시끄러움'을 '식글어움'으로, '알려고'를 '알나고'로, '마침내'를 '마참내'로, '알 바'를 '알배'로, '반디불'을 '개똥불'로, '더불어'를 '더부러'로, '알다'를 '아지'로, '흩어지다'를 '헐어지다'로, '즐거운'을 '질거운'으로, '알음알이'를 '아름아리', '들어가 아득히'를 '드러가 아득키'로, '일어나'를 '이러나'로, '마땅히'를 '맛당히'로, '버티어'를 '벋이여'로, '쪼그리고'를 '쫑그리며'로, 장소를 뜻하는 '곳'을 '곧'으로, '갑을 수'를 '갚을수'로, '바쁨'을 '밥뿜' 등의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다.

또는 「몽산시총상인법어(蒙山示聰上人法語)」에서도 '이루다'를 '일우다'로, '흩어지다'를 '헐어지다'로. '자체'를 '자최'로, '이름'을 '일홈'으로, '새끼'를 '색기'로, '모범'을 '뽄'으로, '쩌는 것'을 '쩔운 것'로, '조금'을 '조곰'으로 등이다. 나아가 「완산정응선사법어(皖山定凝禪師法語)」와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에서 '잡아들되'를 '잡들되'로, '묻되'를 '무르되'로, '영험'을 '령험'으로, '사량'을 '상양'으로, '충분히'를 '십분'으로, '쓰는 것'을 '쏘는 것'으로, '굳은'을 '구든'으로, '수많은'을 '수다한'으로, '한결같이'를 '한갈같아'로. '채찍'을 '채쪽'으로, '해'를 '날'로, '이미'를 '임의'로, '도리켜'를 '도로키어'로, '한 꼬챙이'를 '한 꼬장이'로, '일어나고'를 '이러나고'로, '무너뜨리지'를 '문어저떠러지지' 등 일상의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다. 이 밖에도 『수심정로』의 어구들이 있지만 이 저술은 용성의 저작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하지만 『수심정로』의 어구들도 현대어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번역들을 현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또한 일반화된 용어는 현재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해 본다. 이것이 원문에 충실한 내용이다. 여기서 원

---

18) 白龍城, 용성 대종사 전집 4, 『禪門撮要』(한글 번역)(pp.4-335-4-365)

문에서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여겨진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바가 있고, 용성의 독특한 번역의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원문만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Ⅲ. 나아가는 말

이상과 같이 『선문촬요』를 번역한 용어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용성이 번역한 『선문촬요』의 내용과 더불어 용성이 번역한 주요어구들과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성이 번역한 『선문촬요』는 『법해보벌』과 『용성 대종사 전집』, 운문사와 범어사에서 판각하여 출판한 『선문촬요』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분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간략한 중에도 참선수행에 요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요긴한 것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살펴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용성의 해박함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용성이 번역한 주요어구들은 당시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용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즉, 불교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하였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당시의 한글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번역한 것이다. 용성의 번역은 기존의 한문 투의 한글 음사가 아니라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성 이후로도 한문을 한글로 음사한 것에 불과한 것을 한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둘째는 용성이 의도한 번역은 일반대중을 위한 번역이라는 것이다. 당시 문자를 모르는 일반대중은 한자의 음사로는 불교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의미의 번역을 철저하게 고수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주권국가관을 피력한 것이

다. 넷째는 일반대중의 포교를 위한 번역이며, 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글 의미의 번역을 시도한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끝으로 용성이 번역한 주요용어에 대한 제안이다. 즉, 다른 일상적인 어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현대 불교학계에서 일상으로 상용하는 주요어구들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어구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 보았다. 또한 현대 불교학계에서 일반화된 용어는 현재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해 본 것이다.

원문	변형	번역	현대어
佛	覺	각	부처
菩薩	正士	정사	보살
菩提	正覺, 覺道	정각, 각도, 각도	보리, 깨달음
佛性	覺性	각성	불성
涅槃	圓寂,	원적	열반
成佛	成覺	성각	성불
佛土	覺土	각토	불토
性	性	성니	자성
如來	大覺	대각	여래

이상의 원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것이 아마도 원문에 충실한 내용일 것이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바가 있고, 용성의 독특한 번역의 의도도 있겠지만, 원 저자의 원문만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내용의 변형과 더불어 사상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용성이 번역한 어구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한다.

주제어 : 백용성 대종사, 선문촬요, 한글 번역, 선문촬요 저본, 법해보벌, 선의 대중화.

Abstract

Matters about translation of *Seon Mun Chwal Yo*(禪門撮要)

Ven. Beop sang, kwang-kyun Jeong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Director. Research Office for Missionary Activities.

Grand Master baekyongseong which he translated by *Sun Moon Chwal Yo*(禪門撮要), along with information about key phrases and key terms was investigated. To sum up information about the following: First, he was translated by an extremely small amount of other than based on Books. But the point of the performance of meditation contains all the parts. His extensive insight and ideas here are shown.

Next, at the time the general public will understand that the term was translated. In other words,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can be said to be intended

Finally, he translated by the current public about key terms commonly used terms are changed to.

In contrast with the ideological content of the transformation will need to review the contents. However, the phrase is translated metabolism study focuses on the latter because the pledge.

Key Words : Baek Yongseong, Sun Mun Chwal Yo(禪門撮要), translation, meditation contains, Beop hae Bo Beol(法海寶筏), Popularization of Seon(禪).

* 참고문헌

『少室六門』「第二門破相論」 등(大正藏 48)
『達磨大師破相論』(卍新纂續藏經 63)
白龍城, 『용성 대종사 전집』, 『禪門撮要 上下』(京城: 三藏譯會, 覺紀 2962(1935)년 再版)
編輯 鏡虛惺牛, 懸吐 雪峰鶴夢, 新刊懸吐 『禪門撮要』(佛母山 聖住寺, 1993)
鏡虛惺牛 編/李哲敎, 『禪門撮要 上下』(목판본)(서울: 민족사, 1999)
鏡虛惺牛 編/李哲敎 譯, 『禪門撮要 上下』(목판본)(서울: 민족사, 1999)
梵魚寺, 『禪門撮要』 上下권(목판본)(부산: 범어사, 2012)
柳田聖山, 『語錄の歷史』(禪文獻の成立史的硏究)(日本: 東方學報, 제57책, 1985)

논문투고일: 2012.10.14. 심사완료일: 2012.11.25. 게재확정일: 2011.12.24.